

<p>2017학년도 제4회 141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b>본 회의 회의록</b></p>	<p>위원장</p>	<p>학교장</p>
<p>○일 시 :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오후 4시 ○장 소 : 교장실 ○참석위원: 최○욱, 정○수, 박○련, 박○숙, 김○곤 (5명) ○불참위원: 이○경, 민○원, 곽○원, 김○훈 (4명) ○배석자 : 김○은, 김○상, 서○연 (3명)</p>		
<p>○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기도 및 인사 4. 운영위원장 인사 5. 전회 회의록 통과 6. 보고 사항 7. 안건 자문 및 토의 8. 폐회</p>		
<p>○의사일정(부의된 안건) 가)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체험학습 계획(안) 나) 2018학년도 교과서용 도서 선정(안) 다) 2017년 「인도네시아 초청 방문 공연」 보고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안) 라) 2017년 「무대미술과 작품전」 운영에 관한 사항 마) 2017년 학교장 추천서 심의 바) 기타</p>		
<p>간 사: 지금부터 2017학년도 제4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기도와 인사가 있겠습니다.(위원장 기도와 인사 후 학교장 인사) 위원장: 8분의 위원 중 이○경, 민○원, 곽○원, 김○훈 위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와서 5명의 위원으로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학년도 제4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록을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 회 회의록 낭독) 위원장: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교원위원(박○숙): 없으므로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정○수): 재청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함)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p>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다음은 안전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안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체험학습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은 선생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은 :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유인물 내용을 설명함) 중간고사가 끝난 10월 20일 오전 12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22일 일요일 저녁에 학교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영화전공 학생 24명과 인솔 교사 2명이 전세 버스로 부산에 가서 국제영화제에 참석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영화 관람이 주된 목적입니다.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위원장: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정○수):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교원위원(김○곤): 재청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받기로 할까요? (위원 전원, “예”라고 대답함) 다음 안건은 2018학년도 교과서용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상 선생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상: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설명) 2018학년도 검인정 신간본 주문을 위한 교과서 선정인데 주문서 나이스 제출 기한이 10월 20일 까지라 날짜가 촉박합니다. 서약서와 심의서에 서명 날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정○수):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이렇게 교과서 검토도 없이 서명 날인만 하라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약하고 심의 사항을 써야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잘 보고 선택했으리라 믿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사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안건도 너무 불성실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네요.

학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안건에 과목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교과서 선정에 대한 절차 등을 명시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너무 허술합니다. 매년 이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원장: 10월 20일까지라면 그 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모여야 하는지요?

교원위원(김○곤):교과서도 저번 주에 왔습니다. 29권이나 되는 교과서를 모두 검토할 시간도 없고요. 결정난 것은 아니고 교과 담당교사들이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심의하시라는 겁니다.

학교장: 학부모님들 중 관심이 있으시거나 전문적 식견이 계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볼 시간이 있으면 참고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를 어떤 것을 선정하는가의 문제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너무 늦게 배부가 된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이 문제로 다시 오시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죄송하지만 비치된 교과서를 보시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부위원장(정○수):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학부모님들이 오늘따라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회의를 일단 마친 후 비치된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서 심의를 해주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2017년 「인도네시아 초청 방문 공연」 보고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안)입니다. 박○숙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박○숙: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재학생 12명과 졸업생 2명 인솔자 4명 총 18명이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K-POP 공연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경비 중 부족분이 발생하면 학교발전 기금 중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을 의결 전 사용하고 추후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부족분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발전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위원장(정○수): 마침 제가 그 기간에 자카르타에 있게 돼서 그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단이 얼마나 잘 하는지 학교의 위상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술단을 인솔하시느라 애쓰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인솔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대외적 공연에 실무과와 실음과 외에도 다른 과도 무대에 설 기회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실음과의 악기 파트도 무대에 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 페스티벌을 올해 열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장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장: 악기 파트가 함께 하면 금상첨화이지만 사실 해외 공연장 자체에 악기 세팅과 음향 장치 등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악기 파트들이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악기들을 소지하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악기 세팅이 되고 기타 정도만 들고 나가는 공연상황이 되면 악기 파트도 물론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 기회는 앞으로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먼 길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은 그대로 받기로 할까요? (위원 전원, “예”라고 대답함) 다음 안건은 2017년 「무대미술과 작품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연 선생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서○연: 무대미술과 1학년과 2학년 작품전시회를 이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처 동 내용에 대해 학운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과 소요 경비 등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내용 설명함)

부위원장(정○수): 제가 무미과 학부모가 아니라서인지 작품전을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장: 가정통신문으로 알리는 드리지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학운위 위원님들과 학과 대표학부모님들께는 문자로 행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 안건은 사전에 미리 논의가 되었다라면 좋겠는데 실기하여 사후 보고형식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위원장(정○수):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교원위원(박○숙): 재청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 안은 유인물 내용대로 받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17년 학교장 추천서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연선생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서○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장 추천서를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학교장 추천 입학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심의 내용 및 추천 절차, 기준 등을 검토해주시고 현재까지 올라온 심의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첨부했으니 이것도 심의 부탁드립니다.

교원위원(김○곤): 일반계 학교는 추천 입학에 엄청 치열합니다. 어떨 때는 소송까지 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학교는 다행히 그런 과열 경쟁은 없습니다. 한 학생이 두 군데 추천을 한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경합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 안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정○수):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교원위원(박○숙): 재청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기타 의논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전원,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것으로 2017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5시 15분)